

국민 여러분과 관계 요로에 사과

健協노동조합, 사과문 발표

한국건강관리협회 노동조합은 지난 6월 19일 사과문을 발표하고(별첨참조) 지난 6월 일부신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1. 국민과 관계요로에 사과하며, 2. 노동쟁의중에 일어난 신문보도는 격한 감정으로 신빙성 없는 추측사항을 나열하여 신문에 보도케 한 것이며, 3. 건협은 공신력 있는 단체로서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는 검사기관이고, 4. 물의를 야기시킨데 깊이 반성하고 직원상호간의 인화단결과 국민건강을 위해 매진할 것을 맹세하며 사과드린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謝 過 文

지난 六月 일부신문 사회면의 “건강관리협회 비리...운운”題下의 記事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解明합니다.

一. 國民여러분과 關係요로 및 機關에 謝過

먼저 國民여러분과 關係機關여러분에게 잠시나마 누를 끼치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우리 건강관리협회 勞組員一同은 深甚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二. 勞動爭議중에 일어난 新聞報道

협회 勞動爭議 기간중 일어난 新聞報道는 勞組員 8名에 대한 人事移動發令에 항의하는 뜻으로 不法集團 示威를 벌였으며 勞組員 50名이 집단 사표를 提出하고 격한 감정으로 이성을 잃고 신빙성없는 추측 事項들을 나열하여 소위 양심선언 이라는 명분을 붙여 기생충 검사실적 허위보고등 6개항을 나열하여 新聞에 報道케 한것입니다.

三. 한국건강관리협회는 公信用있는 團體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餘年間 國民들의 健康檢査를 실시해온 公信用을 자랑하는 檢査機關으로서 國民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믿고 檢査를 받을 수 있는 公益檢査機關이라고 우리 勞組員들은 지금도 믿고 있으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四. 협회 임직원에 대한 謝過와 勞組員의 決議

우리 勞組員一同은 임직원 여러분과 동료들에게 이번 사태로 物議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깊이 反省하고 협회 公信用과 信賴性 回復에 적극 參與할 것을 다짐하며 職員相互간의 人和團結과 협회의 발전과 國民健康을 위해 邁進할 것을 다시한번 맹세하면서 정중히 謝過드립니다.

一九八八年 六月 一九日

韓國健康管理協會 勞動組合
위원장 康熙爽의 組合員一同

健協은 公信用을 자랑하는 검사기관

직원일동 해명서 발표코 결의다짐

지난 6월 健協 노동조합 쟁의 중에 일어난 일부 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 직원 일동은 해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당국의 정확한 감사로서 신문보도내용의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밝혀졌으며, 일부 작은 사안을 제외하고는 사실무근 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말하고 健協은 20여년간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으로서 지금도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다짐”에서, 1. 명예회복과 공신력 회복, 2. 노조원 비노조원의 인화단결, 3. 국민건강증진의 사명감을 새롭게 다짐했다.

이어 본부 및 각시도지부에서는 각각 결의대회를 열고 협회의 목표와 사명감을 재삼 다짐하고 일로 매진할 것을 맹세했다.

解 明 書

貴職場의 日益繁昌하심을 祈願합니다.

먼저 저희 協會職員 一同은 일시나마 有關機關 여러분께 本意아닌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 深甚한 謝過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6월 일부신문의 “健康管理協會 非理...운운”의 新聞報道는 勞組員이 人事發令에 反撥하여 不法示威에서 集團辭表로 進展되었으며 及其也는 一部 勞組員이 소위 良心宣言이라는 名分을 붙여 新聞에 報道케한 것입니다.

事件 직후 勞組는 자기들의 主張과 취한 行動이 잘못이었음을 是認하고 反省을 하면서 지금은 任地에서 열심히 勤務하고 있습니다.

또한 政府當局의 正確한 監查로서 新聞報道內容의 是是非非가 明確하게

밝혀졌으며 6個項의 非理도 일부 작은 事案을 제외하고는 事實無根이라는 것이 判明되었읍니다.

우리 韓國健康管理協會는 二十餘年間 公信用을 자랑하는 檢査機關으로서 安心하고 믿고 檢査를 받을 수 있는 公益機關이라는 것을 지금도 自負하고 있습니다.

協會職員 一同은 이번 일로 物議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깊이 反省하면서 公信用과 信賴性 回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決議를 다짐하며 새出發을 하려고하오니 倍前의 愛護와 鞭撻을 바랍니다.

우리의 다짐

一. 우리는 協會人의 一員으로서 誤導된 協會의 名譽回復과 公信用回復에 最善의 努力을 傾注한다.

一. 우리職員 一同은 勞組員 非勞組員 <46페이지에서 계속>

健協 서울지부, 공로직원 감사패 받아

수출공단의의보산하 근로자 건강검사 공로 인정



▲서기홍서울지부 사무국장이 수출공단의의보로부터 서울지부 감사패를 받고 있다.

健協 서울특별시지부와 직원들이 한국 수출산업공단단지 서울지구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감사패는 健協 서울지부가 수출공단 의보와 협동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수출공단의의보 산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염검사 및 예방접종 기간동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검사업무에 성실히 임해주고 무사히 끝나쳐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다.

이 검사사업은 의보산하 사업장 근로자 총 7만여명을 대상으로 6월15일에 최종적인 집종을 끝마쳤다.

한편 감사패 시상 직원은 다음과 같다.

- ◎남서중(서울시지부 사업과장)
- ◎윤희동(서울시지부 사업계장)
- ◎황성수(서울시지부 사업과)

〈45페이지의 계속〉

을 莫論하고 人和 團結하여 協會의 再建에 最善을 다한다.

- 一. 우리는 國民健康을 增進하는 役軍으로서의 使命感을 새롭게 다짐하고 一路 邁進한다.

一九八八年 七月 六日

韓國健康管理協會

本 部 職員一同
 서울 特別市 支部 職員一同
 釜山 直轄市 支部 職員一同

大邱直轄市支部	職員一同
仁川直轄市支部	職員一同
京畿道支部	職員一同
江原道支部	職員一同
忠清北道支部	職員一同
忠清南道支部	職員一同
全羅北道支部	職員一同
全羅南道支部	職員一同
慶尙北道支部	職員一同
慶尙南道支部	職員一同
濟州道支部	職員一同

건강관리 공개강좌에 좋은 반응

8월에는 “고혈압”, 23일 오후 2시



健協 서울특별시지부가 지난 3월부터 매달 실시해온 건강관리 공개강좌가 국

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 공개강좌는 지난 3월 22일 “AIDS를 시작으로 해서 매달 4째주 화요일에 자궁암·심장질환·당뇨병·신장질환 등을 주제로 개최되어, 국민 건강관리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매달 일반국민을 비롯한 보건관련자들이 참석, 오늘날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健協 서울지부는 8월 공개강좌를 8월 23일 오후 2시, 홍보관에서 “고혈압”을 주제로 개최키로 했다.

7월 공개강좌는 연세의대 이 호영 박사가 “신장질환”을 주제로 강의했다.

라디오스팟 방송 실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방송

健協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라디오 스팟방송을 실시한다.

지난 4월 보건의 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방송은 MBC라디오의 여성시대 2부(10:05~11:05 사이)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방송내용은 건강검사의 필요성과 계몽방송으로 되어있다.

노사문제 완전 합의

건협, 노사분규 타결코 정상근무

한국건강관리협회 노사분규가 완전 타결되어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6월 17일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개최된 노사회의에서 완전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조인을 끝마침으로서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노조원 8명에 대한 원대복귀문제도 이미 지난 7월 17일로 원대복귀되어 정상근무중에 있다.